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仰視적 시각의 풍경과 力動적 空間 구성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홍 제 희

논문 개요

본 논문은 대학원 과정 동안 제작된 본인의 작업 중 석사 학위 청구전에 출판되었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 분석한 것이다.

본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도시 풍경 속에서 조형미를 발견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앙시적 시각으로 위치를 옮겨가며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 구조물을 형성하는데, 하늘과 건물의 시각적 대조, 면과 선의 구성과 상호작용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은 그 속에서 미적 구조와 역동적 힘을 발견했으며 그것들을 포착하기 위해 건물과 하늘을 결합하여 사진을 찍어 하나의 이미지에 담고, 이들 사진들을 재조합을 통해 복수 프레임화하여 다양한 공간 형식 실험을 통해 공간을 재구성하였다.

그 공간 실험의 형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되었는데, 수평적·수직적·원형적 공간 배치에 의해 프레임들을 재조합하였다. 결과적으로 구축되어 나온 공간은 형상이 부유하는 움직임 내포하는 공간, 확장된 진행채로서의 공간, 그리고 시각적 공간 이동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이로써 역동성을 지닌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 작품에서 이미지를 평면화시키고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는데, 이 또한 하나의 공간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도시 풍경 속 공간을 앙시적 시각을 이용해 다각적인 공간 구성 방법과 실험을 통해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다 활력 있는 이상적인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내용적 측면	2
1) 표현 동기	2
2) 표현 목적	3
3) 구성주의 사진	5
2. 조형적 요소	7
1) 양시(仰視)적 시각	8
2) 역동적 공간구성 - 재조합	8
(1) 수평적 공간 이동을 위한 배치	9
(2) 수직적 공간 이동을 위한 배치	9
(3) 원형적 공간 이동을 위한 배치	10
3) 단순화된 이미지를 통한 공간성 획득	12
4) 작업과정	13
3. 작업 설명	16
III. 결론	31

참 고 도 판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study I, 300×73cm, digital print, line drawing, 2003
- 【작품 2】 study II, 100×91cm, digital print, line drawing, 2003
- 【작품 3】 study III, 160×147cm, digital print, line drawing, 2003
- 【작품 4】 study IV, 127.5×137.7cm, digital print, line drawing, 2003
- 【작품 5】 study V, 96.5×23cm, digital print, 2003
- 【작품 6】 study VI, 80.2×72.07cm, digital print, 2003
- 【작품 7】 study VII, 80.1×58.76cm, digital print, 2003

I. 서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간 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며,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한다. 삶의 의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본인은 도시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미지였으며 그 이미지는 위치를 옮겨가며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보았을 때 야기되는 공간의 지각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도출되었다. 그 속에서 미적 구조를 발견하였으며, 상상력을 이용해 실제 풍경을 조형적 풍경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는 실제 공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현실을 되돌아보고, 현실의 공간보다 활력 있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한 것이다.

화면에서 복수 프레임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성을 통해 공간을 다각적으로 실험하여 시각의 확장을 꾀하고 역동적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공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으로 나누어 시도하였다. 우선 내용적 측면에서는 표현 동기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의 작업을 구성주의 사진작가들과 연관시켜 생각해보고자 한다. 조형적 측면에서는 양시적 시각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의도한 역동적 공간의 구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화된 이미지가 어떻게 공간성 획득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작업 과정을 설명하고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삶과 미술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며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형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의 작업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내용적 측면

1) 표현 동기

인간에게는 일상적 생활 안에서 자신에게 특별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술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자연이나 사회,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예술은 이런 주변세계를 표현함에서부터 시작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변 세계는 의식의 끊임없는 흐름과 물질의 급격한 생성과 소멸 등으로 무심코 지나쳐버리거나 우리들의 의식 밖에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각자 자신만의 특수하고 독자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나오는 것이다.¹⁾

본인은 생활 속 관찰자가 되어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주변 환경에서 소재를 발견하고 거기서 접한 경험을 시각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도시의 풍경은 거대한 인공조형물로 표상된다. 하지만 아무리 도시가 발전한다고 해도 변함없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연인 하늘이 있다. 본인은 뺄뺄하게 늘어선 도시의 빌딩 숲을 지날 때마다 그 틈틈이 보이는 하늘, 그 열려있는 무한한 공간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쫓아다녔다.

그렇게 건물들의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관찰하다가 그 하늘 공간 안으로

1) 장성원,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공간 표현에 관한 작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p4

들어오는 건물들의 다양한 형상들이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든 채로 시선을 위로 향하면, 하늘 안으로 사방에서 건물들의 윤곽선들이 한 지점을 향해 힘차게 수렴하다가 하늘, 그 무한한 공간과 만나는 모습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 속에는 수직선·수평선·사선들의 교차, 선과 면의 연결과 맞물림, 다양한 예각과 둔각들의 상호 작용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위치를 옮김에 따라 하늘과 건물이 강한 대조를 이루며 시시각각 변하는 과정 속에서 역동적 힘이 느껴졌다. 이러한 무수한 변화의 형과 구성미를 포착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었다. 이의 시작으로 먼저 사진을 찍고, 이 사진들을 조합을 통해 역동적 공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는 사고의 확장, 연상을 유발시켰다.

2) 표현 목적

사람들은 습관성으로 인해 주위의 사물에서 조형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다. 습관은 우리들을 맹목적인 상태로 몰아넣어버린다. 그것은 그 유용성과 결합된 일상성 때문에 형상으로 보여질 어떤 기미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우리가 습관성에서 벗어나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공간을 인식하면 새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하늘 속에서 스스로 강한 형상성을 띠며 시선의 방향에 따라 다각적으로 변하며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건물의 모습을 고개를 들어 위를 향해 연속적으로 찍은 후 그 사진들을 배열해 보았다. 그 결과, 서로 근접한 것들이 연결되며 어떤 형을 만들어 내어 그것은 풍경사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형적 패턴처럼 보였다. 상하, 또는 좌우로의 배열에서 면과 면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이미지

2)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1995, p. 442

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치 강력한 결합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은 단단한 형태감이었다. 여기서 떠오른 생각은 보다 조직적으로 재조합을 하면 또 다른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으리란 것이다. 처음 시작은 하늘과 건물을 결합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담았지만, 그런 다음 그 이미지들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도출해내고 복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화면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선 형태 면에서 새로운 형식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실재하는 대상을 원래 기능에서 옮겨서 상상하고 재조합에 의해 새로운 이미지를 산출하여 역동적 공간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관람자로 하여금 연상의 기회를 주고 보는 사람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상상 속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상상은 때때로 '새로운 주제의 발명'이라고 오인된다. 그러나 예술적 상상은 낡은 내용을 대신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견이요, 또는 낡은 주제에 대한 참신한 개념이다. 상상적인 형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제공하려는 바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새롭게 하려는 욕구에서 나온다. 리얼리티를 왜곡하는 대신, 상상적 형태는 진실을 재구성한다. 그것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어떤 경험을 재상상하려던 시도의 예기치 않은 결과이다.³⁾

또 다른 관점에서 본인의 작업을 보면, 복수 프레임을 통해 확장된 시선을 얻었다는 점이다. 즉, 연속되는 응시를 얻었다는 것이다.

원래 인간의 눈은 시야의 한계상, 좁은 시각을 벗어나서 볼 수 없다. 우리가 보다 넓은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봐야 한다. 하지

3)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1995, p 151

만 다른 곳을 바라봄으로써 응시(gaze)를 바꾸면 결국엔 그것도 하나의 축소된 응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좁고 한정된 응시를 벗어나고 시선의 방향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미지를 포착하고자 단일한 사진이 아닌 복수사진을 찍게 된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응시들을 조합함으로써 시각적 이동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역동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 본인의 이런 생각은 구성주의 사진의 경향과 관련시켜서 생각해볼 수 있다.

3) 구성주의 사진

구성주의 사진이란,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서유럽에서 시작된 사진의 한 유파로서 컨스트럭티브 사진(Constructive Photography)이라고 부른다. 이 유파는 기존의 사실적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 내면에 비추인 현실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풍경이나 인물 등 전통적으로 사진의 주제가 되어왔던 친근하고 사실적인 대상들을 배격하고, 극적이며 가공의 세계임을 확연히 드러내는 주제를 선호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합성하거나 변형시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즉, 이런 유형의 사진들은 찍는 사진이이라기 보다는 만드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엔 브룩스(Ellen Brooks), 디볼라(John Divola), 커밍(Robert Cumming)등이 구성된 사진을 대표하는 작가들이었는데, 이들의 작품은 주로 의도적으로 계획된 장면을 담은 연출사진의 성격을 많이 지녔다.⁴⁾

이들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복수 프레임을 이용하여 공간의 조형적 구성을 시도한 구성주의 사진 작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사진작가 얀 디베츠(Jan Dibbets)와 프랑스 태생의 캐나다 작가인 피에르 부개르츠(Pierre

4) 월간미술 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96, p. 43

Bougarts)가 있다. 이들은 사진들을 구성하면서 특히 시각의 확장과 공간의 시각현상에 관심을 갖는다.

먼저 얀 디베츠의 대표적인 작품인 땅 “0도에서 135도까지”(Land 0 degrees - 135 degrees)(도판 1)을 보면, 그것은 마치 기울어진 비행기 안에서 찍은 듯한 일련의 10개의 수평으로 연결된 사진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그는 한 컷 한 컷마다 카메라의 각도를 15도씩 기울여 찍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은 180도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맨 처음 사진엔 하늘이 땅 위에 찍힌 모습이지만 맨 마지막은 거꾸로 땅이 하늘 위에 찍힌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이런 구성을 통해 그는 시간, 장소, 그리고 반복을 통해 우리의 시각적 구조에 대한 탐구를 복수 프레임으로 보여주고 있다.⁵⁾

다음으로 피에르 부개르츠의 작품을 살펴보자. 그의 “스크린 시리즈 : 도심의 하늘, 뉴욕”(screen series : sky of city, New York)라는 제목의 연작은 그 구조가 관객으로 하여금 지각적이고 유추적인 추리를 해보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그의 작품 “25번가”는 하나의 기둥처럼 하나의 벽면 위에 수직으로 붙여진 8점의 사진으로 구성되었는데, 맨 밑에 있는 첫 번째 사진에서 맨 위에 있는 여덟 번째 사진으로 옮겨오면서 관객의 시선은 작품의 몽타주의 시각적 연계에 따라서 촬영의 시각적 행적을 재구성하게 된다. 그의 또 다른 작품 “윌리엄 스트리트와 존 스트리트”(William Street and John Street)(도판 2)을 보면, 총 9장의 사진을 X자형으로 조합한 후 가운데를 기점으로 조금씩 엇갈리게 재배치하였는데, 건물이 있는 외곽 부분이 틈을 만들어 하늘공간을 보여준다. 가령, 사진의 시선이 현실의 프레이밍, 구획, 절단의 문제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맨하탄 거리의 상징적 건축 또한 여기에서 하늘의 무한성을 절단하고

5) 장-크로드 르마나·앙드레 루이예, 「세계사진사」, 정진국 역, 까치, 1977, p.469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시각적 규칙에 따라 현실을 가공하고 구성하는 것, 즉 총체적인 구성에 따라 현실이 재구성되는 것이다.⁶⁾

위의 작가들이 복수 프레임을 통해 공간이 어떻게 지각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인은 복수 프레임을 이용해 공간의 시각적 이동 효과와 역동적 힘의 생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험을 하였다.

2. 조형적 요소

본인이 도시 속에서 경험한 시각적 충격은 어떤 장소에서 특정한 조형물을 보았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특정한 시각적 구조성이 본인으로 하여금 역동적인 힘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은 그 순간은 대상의 원래 용도가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의 미적 구조로 보인 것이다. 그 미적 구조는 양시적 시각에 의해 야기되는데, 하늘을 배경으로 한 건물은 다양한 기하학적 형을 이루며 자연의 일부인 유기적 형의 하늘과 강한 대조를 이루며 시각적 힘을 전달한다. 또한, 수렴하는 선들과 날카로운 예각들을 가진 면들은 상호작용을 하며 구성미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역동적 힘들이 파생된다.

그렇다면, 양시적 시각이란 어떤 것이고, 그것이 공간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본인이 의도한 공간 구성의 형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6) 장-크로드 르마나·앙드레 루이예, 「세계사진사」, 정진국 역, 까치, 1977, p.469

1) 양시(仰視)적 시각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우리의 눈높이로 보게 되는 경우를 수평시(水平視), 사물이 우리의 눈높이보다 현저하게 위쪽에 위치해 있을 경우를 양시(仰視)라고 하고, 반대로 그것이 눈높이보다 극히 낮게 위치해 있을 경우를 부감시(俯瞰視)라고 한다.

시점에 따라 현실의 조형적 차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수평시는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리하여 세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조감으로 본 현실의 모습은 항공 사진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오목한 것과 볼록한 것, 높낮이의 차이는 사라져 평면화되고 추상화된다. 양시에 의해서도 현실이 변형되어 보인다. 바닥면은 넓어 보이는 반면,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하늘로 치솟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속도감이 느껴지는 육중한 모습을 만든다.

어떠한 시각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형적 관점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시를 주는데, 조감으로 본 세상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 통제적인 관점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양시로 본 세상은 피라미드 형태를 하고 있어 위엄이 있어 보이며 한계를 지닌 인간의 자유와 이상을 향한 갈망과 현실 초월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은 양시를 통해 하늘을 향한 응시, 도시에 대한 응시, 나아가 무한한 공간, 그 무한성에 대한 응시를 통합하여 열려있음, 무한성에 다다르고자 한 욕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역동적 공간구성 - 재조합

모든 그림 속에는 대상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시각적 힘이 존재하는데, 예

술심리학자 루돌프 아른하임(Rudolph Arnheim, 1905~)에 의하면 시각적 힘은 지각, 감각, 또는 사고하는 어느 것만큼이나 실재성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적 힘의 작용들을 의도적인 구성과 계획에 의해 다양하게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두 개 이상의 면을 재조합함으로써 역동적인 공간을 창출하였는데,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1) 수평적 공간 이동을 위한 배치

두 개 이상의 면을 수평적으로 배치한 구성이다.(작품 1,5,7) 수평적 공간 배치는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평온한 느낌을 가져온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같은 면을 쌍으로 배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 구성은 두 개의 면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중 하나의 방향을 180도로 돌려서 나머지 것과 마주보게 배치하여 같은 방향으로의 단순한 나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대칭적 균형감을 지닌 새로운 형태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구성에는 강력한 중앙점이 형성되어 그 쪽으로 시각적인 무게 중심이 생겨 시선을 수렴시킨다. 한편, 양쪽 면의 좌우로 각이 형성되어 그 두 방향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힘이 전달되어 긴장감이 도출된다.

수평적 공간 배치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여 시선의 연속적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면들을 배치하였다.

(2) 수직적 공간 이동을 위한 배치

두 개 이상의 면을 위아래로 쌍듯이 배치하는 경우이다. (작품 2, 6) 수평적 구성에서 면들은 수평이라는 공간적 위치로 인해 동등하게 대결하는 반면에 수직적 구성에서는 아랫부분이 윗부분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하는 위계적 관계가

형성된다.⁷⁾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면, 사물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긴장감 있는 화면이 나온다.

이러한 시각적 무게감과 각의 방향에 따른 힘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수직적으로 공간을 배치하였다.

(3) 원형적 공간 이동을 위한 배치

작품 3에서처럼 중심의 한 점으로부터 원심적 방향으로 확산되는 면을 구성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구성은 시각적인 원심력에 의해 시선을 무한공간으로 이동시켜 공간이 무한히 밖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작품 3을 보면, 단지 3개의 면들을 연결하여 배치하였지만, 그 중 한 면이 밖으로 팽창하는 원뿔 모양을 하고 있어 전체적 이미지는 보다 함축적으로 밖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암시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공간 배치에서 공통적으로 반복의 구성이 나오는데, 동일한 형식의 구성이 반복되면 시선이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동적인 감을 주게 되어 리듬이 생기며, 시각적으로는 힘의 강약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⁸⁾ 또한 시선을 반복적 구성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따라 가다 보면, 화면은 외부의 공간으로 무한히 지속될 것 같은 확장효과를 가져온다.

위의 구성 원리들에 의해 결과적으로 구축되어지는 공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속의 형상의 부유와 생명력 있는 운동감의 획득이다. 처음에 양시로 찍은 공간 속 형상의 모습은 중력의 힘에 의해 대지에 기반을 두고 일률적

7) 루돌프 아른하임, 「중심의 힘」, 정용도 역, 눈빛, 1995, p. 130

8)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 34

으로 위로 향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조합시 사진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어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상들은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늘 속에서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역동적인 공간이 산출되었다.

무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에 대한 경험이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무게의 저항을 극복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운동은 이와 비슷한 승리를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⁹⁾

본인 작품에서와 같이 이러한 움직임이 내재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형상의 집결, 혹은 확산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혹은 형상이 관람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반대로 뒤로 물러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그 형상과 전체적인 공간 프레임, 그리고 주변의 다른 요소들과의 위치적 관계와 시각적 힘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작품 1에서는 중앙의 구조물이 사방에서 둘러 쌓여진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의 이동은 없어 보이는 반면, 앞쪽으로 다가오거나 뒤쪽으로 후퇴하는 느낌을 유발한다. 반면, 작품 2에서는 공간이 트여있는 왼쪽 상단 쪽으로 형상이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특성은 열린 확장성이다. 조합에 의해 공간을 구성할 때, 복수프레임으로서 대상을 완결된 모습으로 전부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을 연결하여 조합하였기 때문에 구축되어진 공간은 닫혀진 완결체가 아니라 열린 역동적 진행체가 되었다. 그것은 화면 안의 이미지로부터 화면의 시각적 강화 효과가 발생하는 동시에 계속의 개념, 즉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더 많은 이미지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느낌의 구성이다.¹⁰⁾ 그리하여 확장과 개방의

9) 루돌프 아르헨하임, 「중심의 힘」, 정용도 역, 눈빛, 1995, p.28

10) 클라우디아 베티·틸 세일, 「현대드로잉 기법」, 미진사, 1987, p.202

극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관람자들로 하여금 연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마지막 특성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찍은 다양한 시점을 지닌 화면을 하나의 공간 안에 재배치하고 공간 구성시 재조합에 의해 면을 수평적, 수직적, 원형적으로 배치한 결과, 시각적 공간 이동이 가능한 공간이 산출되었다.

요약해보면, 재조합에 의해 구축되어진 공간은 형상이 부유하는 움직임은 내포하는 공간, 확장된 진행체로서의 공간, 그리고 시각적 이동이 가능한 공간, 결과적으로 역동성을 지닌 공간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3) 단순화된 이미지를 통한 공간성 획득

본인 작품을 이미지 면에서 분석해본다면, 그것 자체도 하나의 공간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작품에서 사용된 톤과 색 등의 요소들은 모두 이미지를 평면화시키고 단순화하여 공간성을 획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작용하였다.

사진으로 찍힌 건물들은 그 사물 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지화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본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는 내면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색은 되도록 절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톤을 낮추어 단순화된 면으로 처리하여 면끼리의 구성과 시각적 힘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된 공간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완성된 작품은 각기 다른 공간에 있던 건물들이 결합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색과 톤을 조절하여 하나의 통일된 공간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본인 작품에서의 또 다른 특징은 선의 사용인데, 이는 마지막에 드로잉으로 첨가한 선을 말한다. 재료로는 연필을 이용하여 자를 대고 일정한 간격과 비율로 조직적으로 그었으며, 가늘고 날카로운 성격의 선을 이용하였다. 2H ~ 7H

의 단단한 연필을 사용하여 종이 표면에 압력을 가능한 한 세게 주어 그음으로써 엠보싱 효과를 냈다. 이는 판화에서 판을 이용해 프레스기에 돌려 나온 느낌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다.

선 또한 본인만의 공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면들에 밀집되어 그려진 직선들은 그 특성상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축되어 나온 공간 속에서의 동적인 시각 이동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또한 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선이 흐르는 방향으로 그것을 무한히 연장시킨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무한공간으로의 진행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사용된 선은 통제된 방법으로 한 쪽 방향으로 그었기 때문에 면들을 조율하고 산만할 수 있는 화면에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느낌과 안정감을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

다음으로 작품에서의 선을 재료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선으로 인해 긴장감이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컴퓨터 출력은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용지 표면은 잉크가 매우 균질하게 가해져서 기계적이고 건조한 느낌을 드러낸다. 이러한 표면 위에 연필로 선을 그었는데, 연필은 그 특성상 빛의 각도에 따라 반사가 되어 결과적으로 두 재료의 특성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된다.

선의 마지막 특성은 그것이 컴퓨터 프린트의 사진적 이미지를 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출력물의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느낌의 결과물에 손작업을 가해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을 부여하였다.

4) 작업과정

본인의 작업의 첫 단계는 사진을 찍고 분류하는 과정이다. 본인은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시간 또한 많이 할애하였다. 양적으로 풍부하고 치밀한 계획에 의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진매체는 시시각각 변하는 이미지를 포착하기가 용이하고 같은 대상을 위치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다. 처음엔 도시 풍경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사진을 찍었다. 일단 어느 한 지점이 결정되면 같은 장소에서 다음 장면을 예상해가면서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은 후, 수집된 사진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구도를 설정하고 각각의 작품을 위한 컨셉을 잡은 후 컴퓨터 작업을 실행하였다. 본인의 작업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조합하여 공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편집이 용이하고 정교한 이미지 조합 작업이 가능한 포토샵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한 매체였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사진을 조합하면서 나오는 공간상의 이질감과 연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수정하고 새로 구성된 공간 속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색과 톤을 조절하였다. 색은 대상의 원래 상태를 존중하되 주관적 색조로 통제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 작품에 따라 약간 노란 기운에서 붉은 기운, 보라 기운 등 전반적으로 하늘과 대비되는 다소 무겁고 물질감이 강한 색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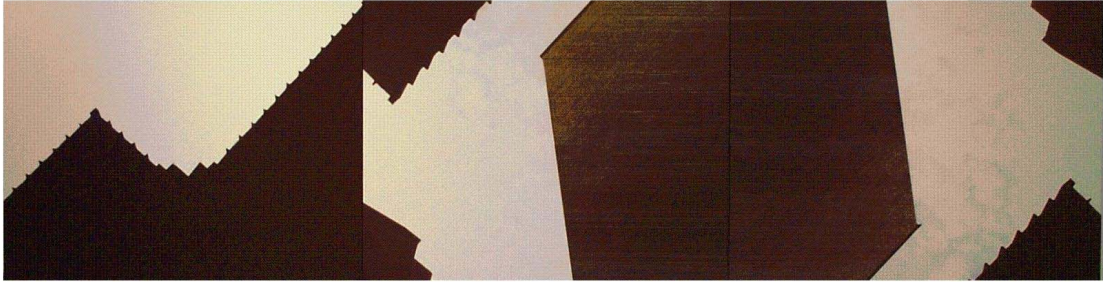
컴퓨터 작업이 끝나면 잉크젯으로 출력을 하였다. 컴퓨터 작업시 사용되는 색의 시스템과 출력시 변환되어 사용되는 색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의 작품을 선택하였다. 출력 용지는 EPSON 사에서 나오는 무광택 회화용 종이를 선택했는데, 결이 있고 재질감이

있어서 마지막에 엠보싱이 가해지는 선 작업을 하기에 큰 무리가 없었다.

작품을 최종적으로 벽에 걸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트를 생략한 판넬을 하였는데, 이는 작품 속 이미지가 화면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도에서였다.

완성된 작품이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연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들을 따로 판넬을 하여 각 작품의 구성에 맞춰 배치한 후 벽에 설치하였다. 결과적으로 화면과 화면 사이에 틈새가 생겼고, 이로써 복수 프레임으로 구성된 작품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다.

3. 작업 설명



【작품 1】 study I, 300×73cm, digital print, line drawing, 2003

【작품 1】 study I

이 작품은 공간 구성의 첫 번째 원리인 수평적 배치에 의한 구성이다. 같은 면을 쌍으로 마주보게 배치하여 새로운 형태가 산출된 경우이다. 전체적인 구도는 3개의 화면이 횡적으로 길게 연결된 수평 구도이다.

우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그림이 연결된 오른쪽 화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운데의 중심 구조는 부정 5각형의 똑같은 두 면이 서로를 마주보게 조합되어 새로운 이미지가 산출되었다. 화면에 의해 잘려나간 수평 부분의 4개의 각 꼭지점들을 화면 밖으로 연장시키면 그 형태는 마름모를 시계방향으로 30도 돌린 것으로 연상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잘려나간 마름모의 형태로 보인다. 이 형상을 중심으로 좌우상하의 코너에 작은 면들이 대칭으로 같은 형태가 반복되어 가운데 형상을 감싸고 있는데, 평온하고 균형감 있는 화면을 만든다. 이로 인해 가운데의 형상의 좌우로의 움직임이 저지하는 힘이 느껴지는 반면, 관람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뒤로 물러나는 움직임이 생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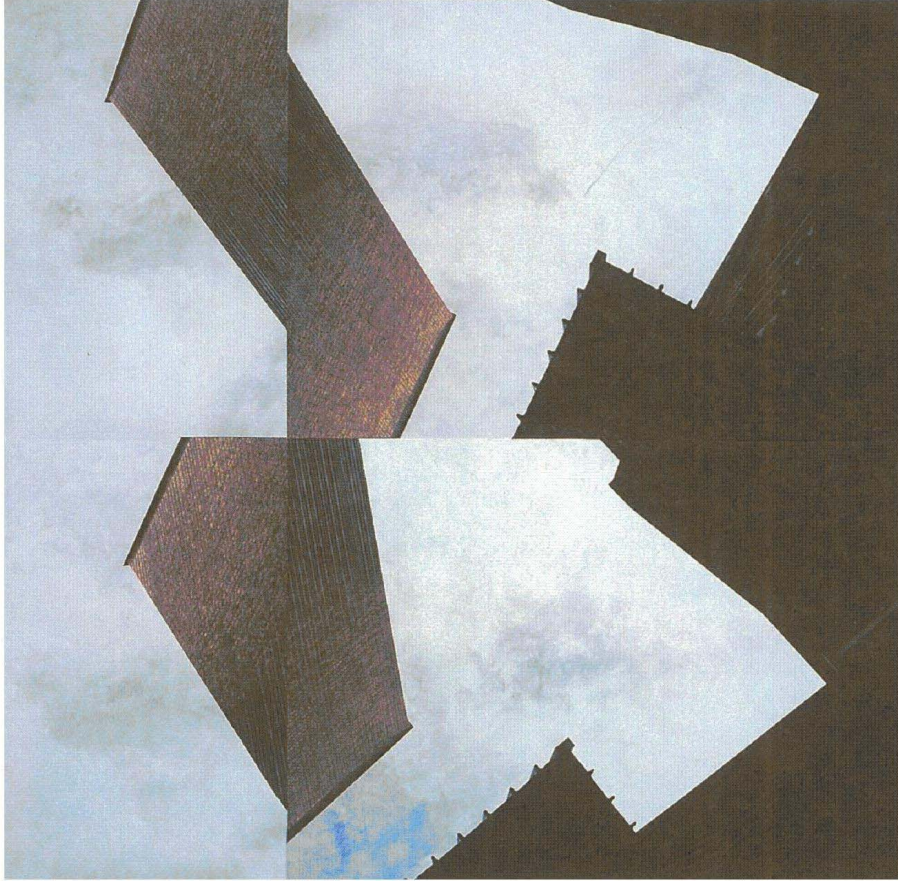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체적인 구도에서 첫 번째의 왼쪽 화면을 살펴보면, 정삼각형과 직삼각형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검은 평면인데, 외곽선을 따라 톱니바퀴 모양의 날카로운 날이 있어서 오른쪽 화면의 균형 잡힌 안정적인 형상과 대조된다. 이 면은 하늘의 이미지가 삭제된 흰 여백 안에 놓여져 이질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전체적인 화면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 화면을 합친 전체적인 구도를 살펴보면, 횡적으로 길게 연결된 수평 구도로서 화면 밖으로 이미지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해 확장과 개방의 느낌을 전달한다.

전체의 화면의 크기에 비해 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중하

고 거대한 구조물이 드넓은 공간에 부유 하고 있는 역동감이 느껴진다.

선 작업은 두 면이 연결된 가운데의 중심 구조에만 수평으로 선을 채워 그음
으로써 안정감을 더했다.



【작품 2】 study II, 160×147cm, digital print, line drawing,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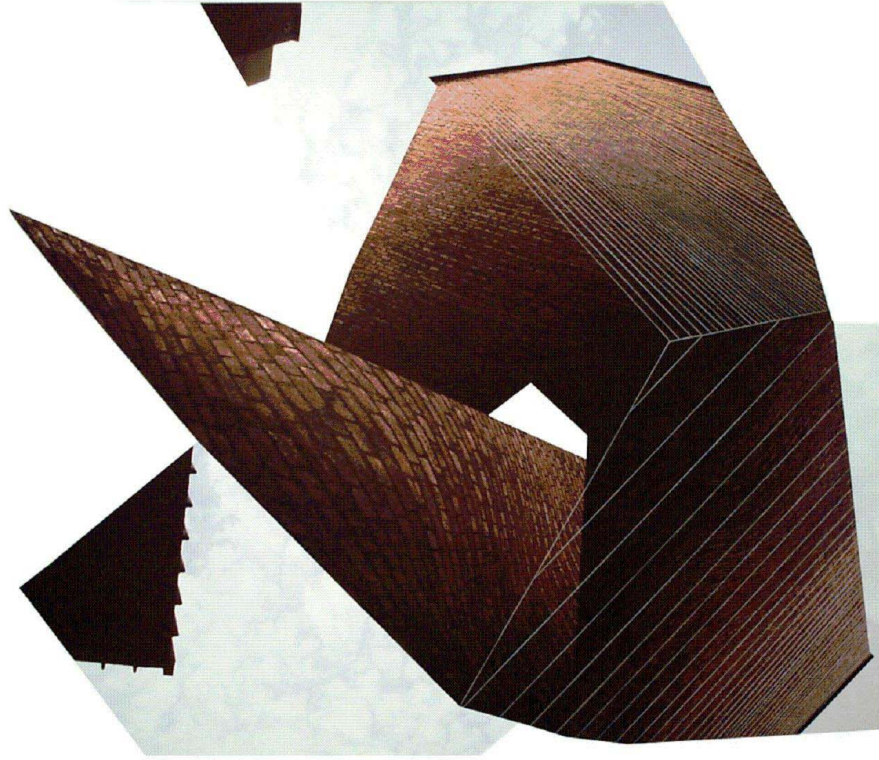
【작품 2】 study II

구도 형성의 두번째 원리인 수직적 공간 배치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같은 건물을 여러 방면에서 찍은 후 대칭을 피해 면들을 서로 엇갈리게 연결하여 위 아래로 배치해 본 후 그 중 형태가 조금씩 다른 4개의 면을 선택하였다. 각도를 달리하여 2개씩 맞물려 조합하여 아래에서 위로 쌓듯이 배열하여 리드미컬한 요소와 함께 수직적 공간 이동 효과를 유도해내었다.

화면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 공간에는 밝게 모습을 드러내는 면들의 구조가 수직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반면, 오른쪽은 어두운 검은 삼각형들이 조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두 구조에서 수많은 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모든 각은 그 방향으로 힘을 날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수많은 힘들의 작용에 의해 역동적인 힘을 생산해내는 공간 효과가 나온다.

또한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살펴보면, 왼쪽의 구조는 자유로운 허공 쪽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른쪽의 구조는 하나의 무거운 집합체가 허공 속에서 오른쪽으로 떠밀려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공간의 끝에 다다라 움직임이 자유로운 왼쪽 구조를 떠미는 힘이 느껴진다.

선은 왼쪽 구조에만 집중적으로 그었는데, 두 면이 연결되어 형성된 축의 방향을 따라 두 면을 이어 그었다. 이는 윤곽선을 공유하는 두 면의 떨어지려 하는 힘을 하나로 묶어주어 안정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작품 3】 study III, 100×91cm, digital print, line drawing,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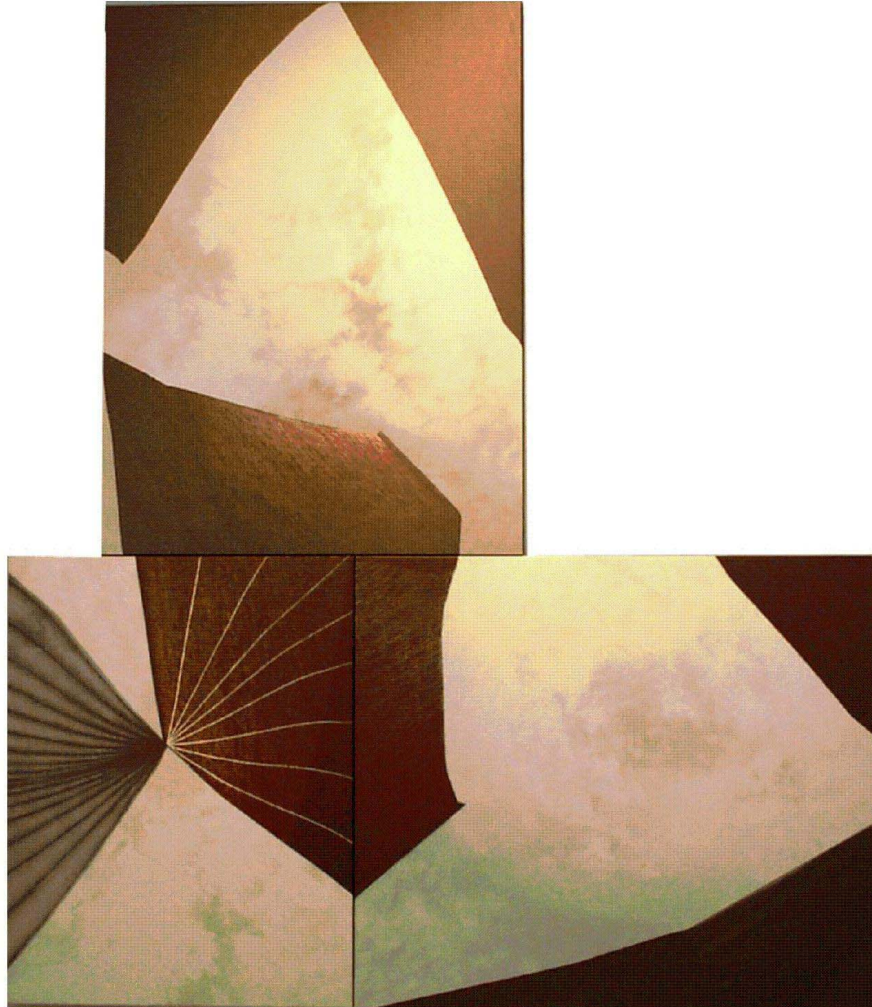
【작품 3】 study III

이 작품은 공간 구성의 세 번째 원리인 원형적 공간 배치에 해당한다. 가운데의 원점을 중심으로 하여 세 개의 면을 60도의 각도로 간격을 만들어 방사형태로 배치하였고 그 중 원뿔 모양의 면을 원편에 배치하여 꼭지점이 있는 쪽으로 강한 움직임의 형상화하였다.

이 원뿔 모양의 면은 구조를 넘어서 확장되고 화면의 축은 밖으로 공간을 날카롭게 찌른다. 이것은 하늘이 있는 면을 이탈하여 무한공간을 침투하는 힘을 형상화한다.

화면의 중앙을 흰 여백으로 남긴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에 의해 사방으로 공간이 확산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른 작품과는 달리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선을 사용하였는데, 점진적인 확산의 효과로 인해 무한공간으로의 시각 이동을 암시하며 왼쪽 상단으로 집중되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에 맞서는 또 다른 힘의 작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 4】 study IV, 127.5×137.7cm, digital print, line drawing,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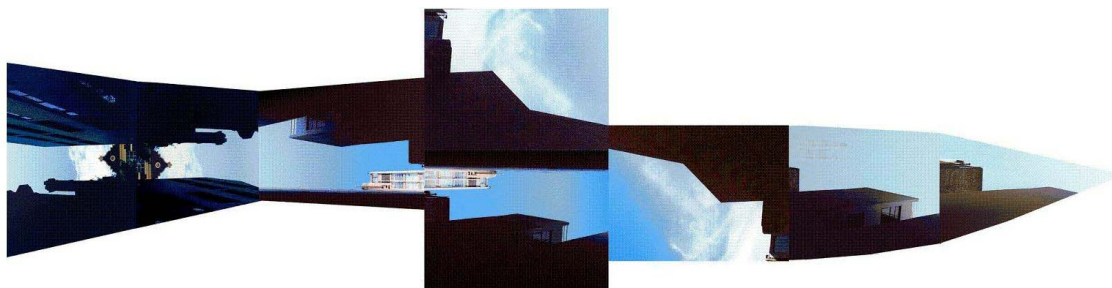
【작품 4】 study IV

이 작품은 수직적 공간배치와 수평적 공간 배치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이다. 전체적인 화면은 사각의 틀을 벗어나서 일종의 변형된 L자형을 이루는데, 구조물이 정중앙에 배치되어 단조로워질 수 있는 화면에 변화를 유도한다.

작품 속의 중앙의 구조물을 보면 세 개의 면들이 연결된 구성인데. 원래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찍은 면들이지만, 이것들을 재배치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입체물이 하늘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단과 오른 쪽 화면의 외곽 부분에 삼각형 형상들이 이 구조물 둘레에 형성되어 그것의 이동을 견제하는 긴장감 있는 면의 구성이 형성되었다.

이 작품에서 사용된 선은 다른 작품에서의 선과 형식과 다르다. 여기서는 면의 안쪽 공간이 아닌 면의 외곽선의 한 꼭지점에서 시작하여 하늘 공간으로 방사형의 선이 밖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는 곧 무한 공간으로 시선을 끌고 그 쪽으로 새로운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5】 study V, 96.5×23cm, digital print, 20003

【작품 5】 study V

이 작품은 수평적 공간 배치에 의한 작품인데, 총 7개의 프레임을 옆으로 배열한 매우 긴 작품이다.

각각의 프레임을 조합할 때는 반복과 대칭, 그리고 균형 등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 작업하여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었다. 구조물 내의 면과 면들이 연결되면서 하늘의 공간을 가운데 공간으로 감싸는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물을 이루는데, 왼쪽 화면의 끝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넓어졌다가 오른쪽 끝부분으로 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구조이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비행기 같기도 하고, 혹은 유선적 운동을 하는 새나 물고기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관람자의 상상에 따라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 구조물은 그 형상의 성격에 의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내포하는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작품 6】 study VI, 80.2×72.07cm, digital print, 2003

【작품 6】 study VI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수평적, 수직적 배치 모두 사용되었지만 이미지 안의 구조물의 강항 형상성에 의해 수직적 공간 이동 효과가 강하게 전달된다. 양쪽의 두 화면의 중앙에 수직으로 세워져 하나의 꼭지점으로 만나는 두 형상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응집력과 반대로 서로를 강하게 밀쳐내는 듯한 반발력이 느껴진다. 화면을 정확하게 4등분하고 화면 배치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구성하여 긴장감 있는 화면 구성을 유도했다.

하늘 안에 동글동글하게 무리지은 작은 구름의 형상과 강하게 대조되어 화면에 긴장감을 배가시킨다.

이 작품은 매우 간결한 공간 구성 방법을 사용했지만, 강한 시각적 힘을 유발한다. 전체적인 화면을 넷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에만 이미지가 배치되는데, 나머지 두 개의 화면은 여백으로 비어져 있어서 이미지 부분이 한층 강조된다. 여기서 여백은 비어있지만 관람자가 임의로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에서의 형상과 관련시켜 여백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품 7】 study VII, 80.1×58.76cm, digital print, 2003

【작품 7】 study VII

이 작품 또한 수평적 공간 배치에 의해 동일한 두 면을 쌍으로 조합한 경우이다. 이 작품의 경우 색조와 분위기 면에서 다른 작품들과 성격이 다르다.

붉은 하늘 공간에 사선의 방향으로 구조물이 배치되어 마치 저녁노을 속에서 물체가 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구조물은 원래 울퉁불퉁한 각을 지닌 면을 조합한 경우인데, 동일한 두 면이 완전대칭을 피해 조금씩 엇갈리게 배치되어 각의 수가 두 배로 늘어 전체적인 외곽선의 흐름이 하나의 각에서 다음의 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매우 울동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다른 작품에 비해 구조물의 크기가 화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드넓은 공간 안에 미지의 물체가 외롭게 떠도는 느낌이 부여되었다.

사선의 모양을 하고 있는 물체에서 움직임이 지각되는데, 수평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좌우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직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 론

미술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 소재를 발견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표현성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본인은 도시 풍경 속에서 신선한 시각적 충격을 경험하고 그 충격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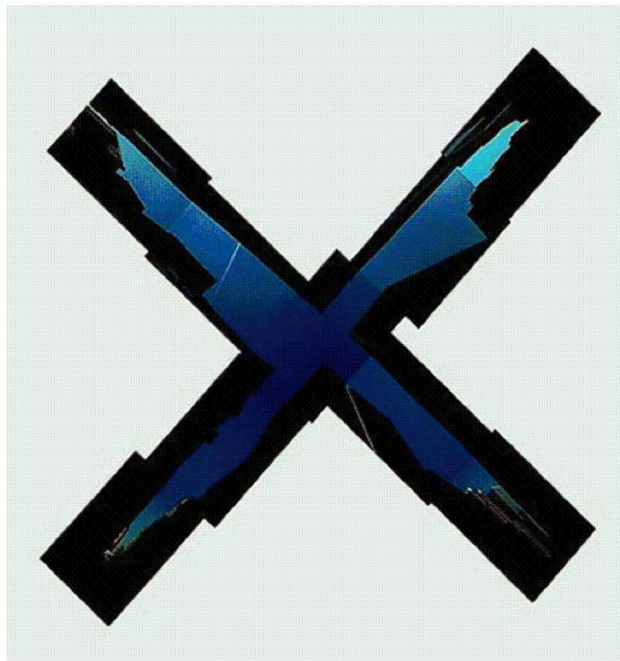
양시적 시각에 의해 도시풍경을 관찰한 결과, 그 속에 숨겨졌던 미적 구조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표현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그 미적 구조는 유기적 형상을 내포하는 하늘과 그것과는 강한 대조를 이루는 건물들의 기하학적 형상들의 상호작용과 시각적 힘으로 보고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나온 사진들에서 면끼리 다시 조합을 하여 단일 사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구성의 형태들을 생산해내었다. 또한 복수 프레임의 형식을 이용하여 시선의 확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시각적 힘의 작용들을 가시화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공간 구성 방식을 택했는데, 수평적 수직적 원형적으로 면들을 배치한 결과, 움직임의 내포하는 힘이 형성되었고 공간의 시각적 이동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생산되었고 결과적으로 공간을 역동성을 지닌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다각적인 공간 연구를 통해 본인의 조형관과 작품세계를 통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보다 다양한 공간 배치 방법과 형식 실험을 연구하여 작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참 고 도 판



(도판 1) 얀 디베츠, < 0도에서 135도까지>, 컬러사진, 1972



(도판2) 피에르 부개르츠, <윌리엄 스트리트와 존 스트리트>, 컬러사진,
1978/79

참 고 문 헌

-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1, 2」, 새길, 1994
- 유평근 · 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1
-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예경, 2000
- 존 워커, 「매스미디어와 미술」, 장선영, 시각과 언어, 1998
-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1995
- 루돌프 아른하임, 「중심의 힘」, 정용도 역, 눈빛, 1995
- E. B 펠드만, 「미술적 구조의 이해」, 김춘일 역, 열화당, 1983
-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 데이비드 라루어 ·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이대일 역, 예경, 2000
- B. 클라인트,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오근재 역, 미진사, 1996
- 클라우디아 베티 · 킬 세일, 「현대드로잉 기법」, 미진사, 1987
- 장-크로드 르마니 · 앙드레 루이에, 「세계사진사」, 정진국 역, 까치, 1977
- 이토우 도시하루, 「사진과 회화」, 김경연 역, 시각과 언어, 1987
- 한정식, 「현대사진을 보는 눈」, 눈빛, 1988
- 정한조, 「사진감상의 길잡이」, 시공사, 1997
- 월간미술 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96
- 장성원,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공간 표현에 관한 작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worm's eye view of the scene and dynamic
space composition

Hong, Je Hee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research and analyses based on the works produced for the solo exhibition. These works were part of the works I made during my graduate course from 2001 till 2003.

I found a formative beauty in the cityscape which I encountered in the daily life and tried to express it by visualization.

When we observe the city with the worm's view while moving, the city forms itself a certain visual structure. The sky and the building interacts while the buildings with the sky at the background forms varied geometric shapes, building a contrast with the organic forms of the sky which is a part of the nature.

In the interactions, I discovered a beautiful structure and a dynamic force. In order to catch these things, I took photos combining parts of the sky and the building and put them into one image. Then I multi-framed

the photos by recomposing and constructed the space through various experiments of space forming.

The forms of space experiments resulted in three ways, which are horizontal, vertical and circular space disposition. Through recomposing the frames in those three ways, I could produce a space which contains movements where objects float, and an extended space still in progress of creation, and a space which involves visual shift of the space. As a result, a dynamic space was build.

In the work, I expressed the images by flattening and simplifying. It was also to obtain the idea of the space.

By these variuos ways of space composition and experiments, I tried ro mak the cityscaoe a reborn into a more vital and ideal space.